

## 아시아미술에 나타난 선재동자 구법이야기

The Story of Sudhana's Pilgrimage Represented in the Asia Arts

고정은\*  
Jeong Eun KOH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 「입법 계품」에는 선재동자(산스크리트어로 수다나 Sudana)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가 질의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선재동자의 구도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아시아의 불교문화권 국가에 회화 혹은 조각으로 작품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平安) 말기부터 가마쿠라(鎌倉)에 걸쳐서 제작된 經典見返繪, 繪卷, 掛幅 등 꽤 많은 수의 유품이 있다. 한국에는 고려시대의 사경변상도나 수월관음도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선재동자가 28번째로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법문을 듣는 장면을 표현한 수월관음도<그림 1>는 고려불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에는 돈황에 9세기의 벽화에서 볼 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kohje@iseas.kr

있고, 이외에 송대의 관화, 탁본, 부조 등이 알려져 있다. 또 네팔에서는 ‘입법계품’의 사본에 첨가된 회화가 있고, 서티벳의 벽화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중부 자바의 찬디 보로부두르에 남아있는 일련의 부조는 무엇보다도 406면이라는 패널에 대량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도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선재동자의 구도편력에 관해 그 도상과 텍스트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여기서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법문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을 고찰하기에 앞서 관음보살에 대해 살펴보면, 관음보살에 대한 경전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엄경』 「입법계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선재동자가 53인의 선지식 중에서 28번째로 방문한 관음보살에게 법문을 청해 듣는 모습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경전에 근거하여 관음보살의 도상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다만, 현존하는 관음보살도를 살펴보면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수월관음도 뿐이다. 이처럼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월관음도’인데, 특히 고려불화에서 즐겨 사용되던 아이템으로 보타락가산에 주거하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선재동자가 합장예배하면서 법문을 듣는 모습을 그린 ‘수월관음도’ 형식의 작품이 다수 제작되었다.

고려불화에서는 보살도로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다수 그려졌고, 특히 관음보살 중에서 수월관음이 주로 그려졌다. 수월관음도에서 선재동자<그림 1, 1-1><sup>1)</sup>는 관음보살의 발아래에 연꽃과 산호 등과 함께 배치되는데,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한 채 관음보살을 응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관음보살은 보타락가산에 주거하는데 바위 위에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 화면 하단의 선재동자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 고잔지 소장 작품<그림 2><sup>2)</sup>처럼 결가부좌

1) 이 글에 사용된 모든 사진은 올해 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황리에 마친 ‘고려불화대전’ 전시도록(국립중앙박물관 2010), 통도사성보박물관 일본 가가미신사 수월관음도 특별전시(2009) 및 기타 불화 관련 도록 등에 실린 사진과 설명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2) 고려후기. 비단에 색. 크기는 146.0x85.5cm.(『고려불화대전』 참고. 이하 생략)



<그림 1> 수월관음도. 고려후기. 일본 가가미신사 소장. 출처: 통도사성보박물관 일본 가가미신사 수월관음도 특별전시 도록(2009)에서 인용.



<그림 1-1> 일본 가가미신사 소장 수월관음도에 표현된 선재동자 세부표현. 출처: <그림 1>과 동일



<그림 2> 수월관음도. 일본 고잔지 소장. 출처: 『고려불화대전』도 54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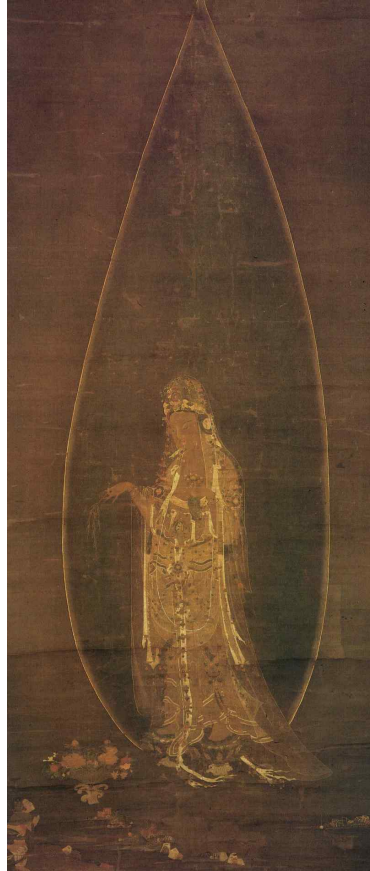
하고 시선은 선재동자를 향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취하거나, 혹은 센소지 소장의 작품처럼 비스듬히 서서 선재동자<그림 3, 3-1><sup>3)</sup>를 바라보는 형식도 보인다.

센소지 소장의 수월관음도에서는 대부분 관음보살이 바위에 앉아 있는 것에 반해, 촛불이 가늘게 타오르는 것 같은, 혹은 물방울 형태의 광배 안에서 서 있는 자세로 묘사되어 있고, 고개를 숙인 관음보살의 시선 끝에는 관음보살을 우러러보며 합장예배하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월관음도에서는 대부분 관음보살을 화면 중앙이나 바라보아 오른쪽에 매우 크게 표현하는 것에 반해, 선재동자는 그 맞은편의 가장 아

3) 고려후기. 비단에 색. 크기는 142x61.5cm.



<그림 3-1> 일본 센소지 소장 수월관음도에 표현된 선재동자 세부표현. 출처: 『고려불화대전』도37 인용.



<그림 3> 수월관음도. 고려후기. 고려 후기. 비단에 색. 크기는 142x 61.5cm. 일본 센소지 소장. 출처: 『고려불화대전』도37 인용.

래 부분에 겨우 눈에 보일만큼 작은 크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갖가지 보석과 보화 앞에서 합장예배하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1>.

한편, 수월관음도에 표현된 선재동자는 말 그대로 동자의 모습을 취한 앳된 모습도 있는 반면, 조금은 나이가 든 청년수행자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그림4, 5, 6). 의복은 바지와 같은 하의를 입고 그 위에袴를 짧게 걸친 듯 하며, 붉은색 바탕에 장식문양이 있는 화려한 천의를 걸치고 있다. 머리 모양은 일반적으로 앞머리 일부만 남기고 삭발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묶거나, 위로 올려 끈으로 묶거나 리본처럼 장식을 단 모습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처럼 선재동자는 대체로 총명하고 활력에 넘친 용모에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 목걸이나 팔찌 등의 장엄구의 표현으로 보아 귀인풍으로



<그림 4> 일본 다이토쿠지 소장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 세부표현. 출처: 김정희교수 제공.

<그림 5> 서복사 소장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 세부표현. 출처: 김정희교수 제공.



<그림 6>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 세부표현. 고려시대. 1323년. 일본 센오쿠하쿠코칸 소장. 출처: 김정희교수 제공.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선재동자의 산스크리트어가 Sudana로 ‘풍족한 베품’이란 뜻이며, 또 선재동자의 출생 시에 갖가지 귀한 보배가 저절로 솟아났다고 하는 선재동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적합한 묘사라고 볼 수 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약간 굽히고 서 있거나, 혹은 한쪽 무릎을 세우고 꿇어앉아 가슴 앞에서 양손을 다소곳이 모아 합장하면서 화면 상단의 관음보살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구법을 찾고자 원하는 선재동자의 간절함이 절로 느껴진다.

다음은 일본에 남아있는 작품을 살펴보자. <도 4, 4-1>은 선재동자가 열 번째로 방문한 선지식인 승열바라문(산스크리트어 이름은 자요스마야트나이며, 방편명바라문이라고도 부름)과의 문답 장면

이다. 승열바라문은 험준한 劍山의 단애절벽에서 고행을 하고 있었는데, 선재동자가 보살행에 대해 묻자, '이 험준한 산에 올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몸을 던지면 너의 보살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답을 한다. 하지만 선재동자는 그와 같은 문답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금 구도의 길을 떠난다. 승열바라문 외에 2명의 선지식으로부터도 이러한 의심스러운 답변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림 4-1> 도다이시 소장 華嚴五十五小繪의 10면 중에서 勝熱바라문을 찾아간 선재동자의 세부표현. 사진: 모리자네 구미코 제공.

<그림 4> 華嚴五十五小繪.10면 중에서 勝熱바라문을 찾아간 선재동자. 비단에 색. 75.8x48.5cm. 헤이안시대(10세기). 도다이시 소장. 사진: 모리자네 구미코 제공.

바로 만족왕과 바수밀다라는 여성이다. 만족왕은 완벽주의자인데다가 많은 정치가와 병사를 거느리고 풍족한 치세를 했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잔혹하리만치 엄한 형벌

(예를 들면, 손과 발을 자른다든지, 귀를 도려낸다든지 하는 비인간적인 처벌을 내림)을 내렸고, 바수밀다는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으로서 선재동자에게 자신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승열바라문의 잘못된 가르침, 만족왕의 광폭함, 바수밀다의 애욕을 통해 선재동자는 다시금 자신을 자각하고, 올바른 보살행을 구하고자 여정을 떠나게 된다.

참고로 선재동자는 모두 55명의 선지식을 만나지만, 이 중에서 문수보살은 첫 번째와 53번째로 두 번 만나게 된 것이며, 51번째로 만난 덕생동자와 유덕동자는 같은 곳에서 같은 법문을 하고 있어서 동일인물로 간주하면 결국 53인의 선지식을 만난 셈이다. 또 53인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 보살이 5인(문수·관음·미륵·보현), 비구스님이 5인, 비구니스님이 1인, 바라문이 2인, 道場之神이 1인, 선인이 1인,



<그림 5> 『華嚴五十五所繪卷』중에서 普救衆生妙德主夜神(바라보아 왼쪽)과 喜目觀察衆生主夜神(바라보아 오른쪽)을 찾아가는 선재동자. 도다이지 소장. 출처: 모리자네 구미코 제공.

천인이 2인, 野天이 8인, 동자가 3인, 동자의 스승이 1인, 海師가 1인, 장자가 10인, 의사가 1인, 여성이 10인, 외도가 1인, 왕이 2인이다.

<그림 5>는 일본 도다이지에 소장되어 있는 『華嚴五十五所繪卷』중에서 33번째 선지식인 普救衆生妙德主夜神과 34번째 선지식인 喜目觀察衆生主夜神을 방문한 선재동자를 묘사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Samantagambhira-srivimalaprabha이며, 보덕정광야신 혹은 심심묘덕이구광명야천으로도 불린다. 보구중생묘덕주야신은 보살이 열가지 법을 구비하면 보살행을 원만하게 할 것이라고 답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보살행과 공덕을 다 알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희목관찰중생주야신을 선재동자에게 추천한다.

<그림 6>과 <그림 7>은 화면 상단 중앙의 노사나불은 특이한 수인을 짓고 있는데,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밖을 향해 벌려 손바닥이 위로 가게 손목을 뒤로 한껏 젖히고, 첫째와 둘째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의복은 백의<그림 6>로 표현되기도 했으며, 화려한 영락으로 장식된 보관을 쓰고 정면을 향해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다. <그림 6>은 고잔지의 명혜화상이 1201년에 佛師로서 그림을 그린 이래로 널리 알려지게 된 구도라고 하며, 이 작품도 명혜화상의 선지식만다라를 원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림 7>은 역시 동일한 구도로 순례장면은 북송 때 성립한 판본 『문수지남도찬』의 도상과 유사하다고 하며,



<그림 6> 華嚴海會善知識曼多羅. 비단에 색. 세로 182.4cm. 가로116.1cm. 가마쿠라시대(13세기). 도다이지 소장. 출처: 모리자네 구미코 제공.



<그림 7> 華嚴海會善知識曼多羅. 비단에 색. 세로134.9cm. 가로80.6cm. 중국 명대(15세기). 일본 도다이지 소장. 출처: 모리자네 구미코 제공.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 판명된 작품이라고 한다. 이 두 작품은 상단에는 중앙에 노사나불과 그 좌우로 6개의 장면이, 그리고 하단에는 42개의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도다이지 개산당에서는 지금도 매년 4월 24일에 선지식공양 법회가 열린다고 한다. 개산당에 이 작품을 걸고, 법회의 서두에 55선지식을 권청하고, 끝부분에 55선지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고 한다.

끝으로 20세기초 러시아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서하왕국의 수월관음도를 살펴보자. 중국의 송나라와 대립했던 서하는 중국의 변방 고비사막 부근에서 활약한 나라로, 러시아 탐험대에 의해 도읍지인 하라호토에서 수월관음도를 비롯해서 아미타내영도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보타락가산의 바위 위에 두 발만 살짝 교차한 자세로 약간 비스듬히



<그림 8> 수월관음도.  
서하. 러시아 예르미타주박물관  
소장.

앞아 있는 관음보살의 모습과, 멀리서 찾아온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구도, 즉 바라보아 우측에 관음보살이 배치하고, 왼쪽 하단부에 선재동자가 표현되는 구도와는 정반대로 되어 있고, 채색에서 느껴지는 푸른 백의 색채감 등은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